

정보화 사회로의 지름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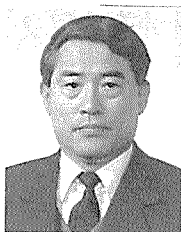
몇년 전만해도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데이터베이스온라인시스템 등 컴퓨터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주위의 시선이 우리들의 대화에 쏠리지도 않았고 또 주위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광경도 흔히 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요즘은 지하철 안에서 그러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내용을 아는 듯 주위의 시선이 쏠리고 마치 자기도 대화에 참여해보고 싶어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너명 모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내귀에 들어오게 된다. MS-DOS에 관한 이야기나 베이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몇번만에 통과되었다느니, 한글에 관한 이야기나 KETEL을 이용하여 밤늦게까지 통신교환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으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현상은 점차 확산속도가 빨라져 지하철내에서의 이런 대화도 늘어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10년, 20년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청년층, 장년층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아마 컴퓨터 세대가 전국민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 환경에서는 컴퓨터를 모르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어서 컴퓨터문맹인 기성세대는 설 땅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

'정보화사회를 구현한다', '모든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를 1대



姜世元

세일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씩 설치한다'등 정부 공공기관 정보산업관련 단체가 벌이고 있는 정보화 사회를 위한 캠페인,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와 홍보활동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추세를 보며 집안에 갖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또는 컴퓨터 동호인들과 서클을 만들어 컴퓨터통신으로 서로의 관심사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취미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과연 젊은 세대들에게만 확산되고 그들만의 전용물이 되어야 하느냐를 생각해본다.

하루빨리 우리같은 기성세대들도 각자 자기집에 개인용 컴퓨터를 놓고 그앞에 앉아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며 정보화 문턱에 한발 앞서가야 하지 않을까?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컴퓨터산업의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일에 기성세대, 젊은 세대, 남녀노소 가릴것 없이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